

제 139 호

연중 제 17주일

1975. 7. 27.

# 순정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강 론□



## 아낌없는 희생의 요구

한 봉 설 신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물과 진주와 그물에 대한 비유들을 하늘나라에 비겨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의 문제는 묵상해 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 수 없을 것 같다.

복음에서 소개되는 보물과 진주와 그물 이야기는 지리상 농업이 성하고 서쪽으로 바다가 접해있던 팔레스티나가 예수님의 활동무대였기에 하늘나라에 비겨지는 소재의 무대로 전개된다.

요즘 우리는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보석에 대한 집념의 부작용으로 연유한 보석 부인들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다. 보석의 소유욕을 인간이면 누구나 구별없이 가지게 되지만, 바로 이 보석이 하늘나라 골 천국이라고 할 때 별로 실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팔레스티나의 지리적인 여건에서 볼 때 수세기동안 팔레스티나에 겪은 수 많은 전쟁의 절박한 위험을 피해, 번번히 귀중품을 땅에 묻어둘 수 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남의 밭에서 일하는 가난한 낱팔이꾼으로 밭을 갈다가 그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래서 밭주인이 알지 못하는 보물을 발견하고서도 착복하지 않고, 먼저 그 밭을 사서 형식상 합법적으로 행동하여 그 보물을 습득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간해서 소유지를 알수 없는 그 보물을, 은밀히 습득하지나 않을 내가 아닐까? 하고 말이다.

두 번째의 진주에 대한 비유도 대동소외하다. 진주는 고대 세계에서 매우 수요가 많은 품목이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팔아 그것을 사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보물과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값진 보석인 하늘나라를 사는데 있어 싸게, 또 쉽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늘나라를 사는데에도 우리가 가진바 모두를 몽땅 팔아야 하는 아낌없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척도를 넘는 큰 기쁨이 한 인간을 사로잡으면, 그 기쁨은 그를 감격시키고 사로잡아 그의 마음을 압도한다. 모든 것을 발견된 보물의 광채앞에서 빛을 잃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복된 소식은 인간을 압도하고, 큰 기쁨을 주며 하느님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삶 전체를 바치게 하고 정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인 당신은 하늘나라를 사는, 그리고 그 방법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아낌없는 사랑의 희생을 주고 싶지 않은가!

(전동 천주교 보좌신부)

## \*이 주일의 미사\*

가톨릭 기도서 P 399

### (1) 개회식

□**임당송**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느님, 모두 한마음이 되어 그 집에 살게 하시다니, 당신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리라.

###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열왕기전서 3.5.7-12)  
너는 지혜를 청하였다.

□**창세기** ④ 주여, 내 당신법을 얼마나 사랑하였나이까! 주님은 나의 몫이오니/당신 말씀 따르기로 정하였나이다/당신이 말씀하신 법이야말로/수천의 금은보다 나으니이다. ⑤

□**제2독서** (로마8: 28-30 성서p253)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 아들의 모습을 닮도록 미리 예정하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하늘나라의 신비를 어린이들에게 드러 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3. 44-52 성서p32)

가진것을 모두 다 팔아 그 밭을 사리라.

### □신자들의 기도

1.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된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어/구원의 신비체인 교회를 세워 주신 아버지 하느님, 성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에/당신의 뜻과 사랑을 심는데 전력하게 하소서. ②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하느님 당신께 기도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오니/당신을 찬양하는 우리로 하여금/당신 나라를 얻는데 요구되는/아낌없는 희생과 사랑을 이웃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③

3. 온갖 재난으로/어려움과 고통중에 있는 이웃 형제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의 뜨거운 손길을 주시어/이웃의 따뜻한 사랑의 보호 가운데/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소서. ④

###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받으리니.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뵈오리니.

## 순정이 산책



미사시간에는 보지 맙시다.





이

웃

사

랑

현대인은 인간의 정을 상실하여 가고 있다. 우리네 선조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애경사에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으며 특히 명절 같은 때는 작년에 왔던 자설이에게도 도움을 주고, 닭서리 수박서리 같은 것도 웃고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이웃을 사랑하는 미풍양속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부상조의 미덕도 잊어버리고 거대한 사회조직 속에 한개의 부족품이 되어 버려서 이웃과 자신을 돌아 볼 마음의 여유마저 잃어 버렸다. 대도시의 경우 옆집사람의 이름도 직업도 가족상황도 모르고 인사도 없이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리를 걸거나, 기차나 버스 속에서도 한결같이 무표정한 얼굴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신자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미사중에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이름도 직업도, 옆의 형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 신자들 까지도 말이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이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위선자라고 심하게 꾸짖으실게다. 성당 안에서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사랑이란 모 천학자의 말처럼 당신의 입술에 입맞추기는 커녕 뺨을 호되게 맞는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자기 헌신과 희생을 뜻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번드르하게 사랑한다는 말만을 늘어놓고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랑이 진실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랑은 언행의 일치와 자기 희생을 요구 한다. 어머니가 자녀를 기를때 한명을 기르기 위해 2,000번 이상 지저귀를 뱉다고 한다. 귀찮고 피로운 일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해낸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입할 때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느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웃사랑에서 시작한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모든 사람은 친구가 방문하였을 때 차 또는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지만, 불행한 이웃에게는 손톱만한 동정이나 도움을 베푸는 데에도 인색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친구에게만 대접하거나, 보상을 바라고 행동한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하신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면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장만하여 성심 성의껏 대접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비천한 이웃을 동정할줄 모르고 사랑할줄 모른다.

미소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하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원수같이 여기는 타 민족에게도 자기 자신처럼 자기 가족처럼 돌보아 주는 자세야말로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이며 이웃사랑의 자세이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데 인색하면서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니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더 나아가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듯이 매일 만나는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코린토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내가 비록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팽가리나 요란한 징소리에 불과하며, 산을 옮길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매일 마주치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헛된 믿음이다. 참아주고 인내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것을 나누어 주는 진실한 이웃 사랑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다. 다정한 인사, 따스한 말 한마디도 사랑의 실천이 된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지않고 받으려고만 할 때 이기주의가 되어버린다. 자기를 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희생이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한다. 매일 매일의 생활 자체가 희생이 될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이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 이웃을 통해 하느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기에 이웃을 통해 하느님께 쉽게 나아갈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나 혼자 힘으로 얻어지는게 아니다. 물방울이 모여야만 바다로 흘러 갈 수 있듯이 이웃사랑과 서로 모여 하나를 이룰 때에만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나 혼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인간이 혼자서는 살 수 없듯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곧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아간다. 미사성제도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같이 우리도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때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의 실천에 따르는 모든 고통은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다. 가장 비천한 이웃에게 사심없이 베푸는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안에 이끌고,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므로 우리 모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겠다. 고 광 욱 (정읍본당)

### ◆ 설악산과 경포대 낙산 해수욕장 ◆

\* 매 일 운 행 \*

설악산, 관동팔경, 동해안의 해수욕장을 저렴한 경비로 쉽게 여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25일부터 매일 인원과 일자에 구애없이 출발합니다. 호남, 경부, 영동 고속도로를 경유하며 특별히 내설악과 외설악을 관광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피서, 친구와 등산 캠핑 등에 아주 적합합니다.

회원권만 소지하고 계시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 (25년만에 개장된 곳이 부근에 있어 한번쯤 찾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각 성당 단체별 여행은 특별 우대함

회비 (전주) : 6,300원 (왕복) 3,300원 (철도)

출발 : 매일 오전 7시 국제관광여행사 앞(문화회관앞)

문의처 : 전동 천주교 사무장님 ☎ 3222

접수처 : 전주 국제관광 여행사 ☎ 3237

이리 동해관광 여행사 5482

군산 서해관광 여행사 3588

전주연락 ☎ 5959 조 선 (안토니오)



□양지쪽□



# 상 패 지 수

한 상 갑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소리에 간간히 바람 소리가 들린다. 뾰족한 숲을 뚫고 보이는, 하늘이라야 손바닥만한 게 파랗기만 하다. 물에 담긴 발이 펴으나 시리다. 이름모를 새소리도 들려온다. 마냥 즐겁고 시원하다. 자리를 함께 한 친구들의 모습이 평화스럽게 그지없다.”

후덥지근한 여름날 잠깐 머리를 식히는 꿈이다. 이른 아침부터 푸욱푸욱 저대는 날씨에 숲통이 꽉 막힐 때, 내가 찾아가는 마을의 고향이다.

날씨마저 무더워 불쾌지수가 높다고 아우성인데다가,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마다, 벌어지는 일마다 숲길을 끼얹는 것처럼 느껴지면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그러니 굳이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럴 때는 차라리 그 반대편의 것들을 찾아 볼 필요마지 있다.

옛그제 1학기 수업이 종강(終講)되었다. 덩어리 큰 난로 60여개가 37도씨의 열을 뿜어 내는데, 바람 한점 없는 교실은 그야말로 가마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실내온도가 0도로 떨어진다. 박수 소리와 함께 1번 학생이 하얀 포장지의 꾸러미를 되려 민다. 속알맹이가 무언지는 몰라도 땀이 싹 거친다. 하얀 양말 한켠레가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다. 한 켠레의 양말이 말이다.

며칠전 보도가 또한 그러했다. 국민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체육 대회에 문제점이 많으니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는 교육위원회 실무자들의 문제부에 대한 건의가 그것이다. 일선 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사이다. 소위 부정선수의 문제점을 솔직히 긍정한 그 획기적인 고백때문에 그러했으리라.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특히 그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더욱 그러하다. 대개 뒷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보다는 얼버무리기에 급급하다.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찾기에 더욱 힘을 쓴다. 이런데서 가끔 부작용이 발생한다. 누구나 제눈의 들보를 보기보다는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내기를 더욱 좋아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무더운 날, 남의 험잡기만 애쓰다보면 불쾌지수는 더욱 높아지고 짜증만 난다. 서로 잘했다고 고대고대 소리를 질러대면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겸손하게 제 잘못을 고백하자. 잘못을 얼버무리 보아야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그렇게 되면 그대는 것잡을 수 없게 된다.

이 더운 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상패지수를 높여보자.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함으로서 끈끈하게 베이는 맘들을 말끔히 닦아내자. 물에 담긴 발들을 침병대는 친구들의 평화스러운 얼굴이 보고싶지 않은가?

요십이 (105) 김병오

— 요십아, 10시다.  
— 빨리 일어나라.



방학첫날부터  
왜 늦잠이냐?



이게 무어야  
혹시 유서가



사람이 늦잠을  
몇시까지 잘 수  
있는지 실험중이니  
절대 깨우지  
마시오.



\*개점 1주년 할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쉼타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철

박영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③ 5893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③ 5013

김원준(야고버)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654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빌 중앙시장동

(전화 ④ 4577)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흑판등>

전화 ③ 0876 김테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1. 고등학생들을 위한 공동체 목상회 초대

대전 대흥동 본당 고등학생들을 위한 공동체 목상회를 개최하면서 전주교구 산하 남·여 고등학생들을 초대합니다. 7월 31~8월2일 (2박3일)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참가비 : 2,500원

참가신청 : 8월 1일 오후 5시까지 가톨릭센터 접수실

## 2. 제4지구 중, 교회장단 회의 : 75. 7. 27. 오후 3시 전동성당 사제관에서

## 3. 전주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 수련회 (본당, 공소). 1975. 28-31일 (3박 4일)

마포에서 실시. 참가비 : 2,000원 각 본당 교리교사들의 신청 바랍니다.

## 4. 노송동 신축 봉헌 약속 기금을 빨리 완납합니다.

## 5. J.O.C. 교구 연합회 정기 총회 (8월2일 &lt;토&gt; 오후 6시-3일 &lt;일&gt; 오후 2시, 상판 신리성당에서)

특히 선배 투사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김 영 진

1. 첫 영성체 교리 : 매일 오후 5시 부터.  
첫 영성체에 입하지 못한 아동들을 빠짐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2. J.O.C 정기총회 : 공식 미사후
3. 동편 상가에 입주 희망자는 본사가 관리 사무소에 문의.
4. 미사 시간 안내 : 월, 화, 수, 목 (오전 6시, 오후 8시) 금 (오전 10시 어머니 미사, 오후 8시). 토 (오후 4. 30분, 6시) 일 (오전 6시, 10시, 오후 8시).
5. 성심 부녀회 월례회 : 8. 1 (금) 어머니 미사후.
6. 고등학교 하기 연수회 : 8월6~9일. (쌀 2되, 800원)
7. 주일학교 특별 교리 : 8. 3~10일 까지.

(노송동)

전화 ②7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안포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견진 성사 : 공식 미사시.
3. 사도회, 성모회 월례회 : 다음주.
4. 지난주일 프란치스코회 주교님 환영에 돌심 양면 수 고에 감사드립니다.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이 강영 : 3,000원 중앙성당 : 8,500원  
주제 : 11,500원 주계 : 3,823,527원  
⑤ 신축성미 4되 주계 266말 1되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종 환

1. 사도회 전체 확대회의 : 다음주.
2. 일치 유대 강화 운동 : 미사중 그룹으로 상호 인사.
3. 중·고생 하기 연수회 : 75. 7. 29~31.  
주제 : 그리스도 완덕과 성.
4. 하기 아동교리 실시 : 75. 8. 4~9일 까지.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부녀부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3. 학생회 참가 연습 : 일요일 오전 8시30분.
4. 여름 주일학교 실시 : 8월4일~9일까지 (미사책 지참)
5. 7.29~31일까지 미사 없음.  
성미 : 1.5되 주계 : 373.7되.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중·고생 하기 연수회 : 29~31일 까지, 본당에서.
2. 신용 조합 월례회 : 공식 미사후.
3. 첫 영성체 교리 : 7. 28일부터 부모님의 적극 협조 요망.
4.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5. 하기, 아동 특별 교리 : 8월 4일부터.
6. 청년회원을 모집하오니 젊은이들은 젊음의 공동체를 이룩합니다.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사도 회장 이 현 재

1. 방지거 삼회 : 오늘 1시30분.
2. 첫 영성체 교리 : 매일 오후 6시.
3. 시범 교리 : 3학년. 10시 미사후 유치원 2층.  
\* 회합 기념 성당 대지 계약 체결  
600평 300만원 (신용조합 대부)  
<행사후 기금 잔고> : 455,880원.  
<행사후 신입자> 이현재 : 30,000원 장준수, 채수현 : 각 30만원 조금석, 이상현, 김병구 : 각 20만원 유종오, 한동수 : 각 30만원, 조양배 : 이만원, 서정옥 : 1만원, 최성용, 홍종식 : 각 5,000원 (5,000원 미만액은 다음주에) 주계 935,880원.  
앞으로 많은 봉헌 바랍니다.

##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 지구     | 본 당                                        | 소 식                                                                           | 봉 헌 금                                              | 지구     | 본 당                                           | 소 식                                                                                     | 봉 헌 금                                                          |
|--------|--------------------------------------------|-------------------------------------------------------------------------------|----------------------------------------------------|--------|-----------------------------------------------|-----------------------------------------------------------------------------------------|----------------------------------------------------------------|
| 제 1 지구 | 고 김 창<br>지 부 제<br>수 안<br>신 류<br>태 인<br>정 음 | 사도회 동혜원 공소 감사<br>꾸리아 회의                                                       | 3,746원<br>18,360원                                  | 제 3 지구 | 주현동<br>창인동<br>화 동                             |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br>L.M. 꾸리아 월례회                                                            | 36,905원<br>41,170원                                             |
|        |                                            | 교리 교사 연수회<br>아동 하기 교리에 협조바람                                                   | 1,435원                                             |        |                                               |                                                                                         |                                                                |
|        |                                            | 사도회 월례회                                                                       | 11,370원                                            | 제 4 지구 | 중 앙<br>노 송<br>덕 동<br>진 진<br>복 자<br>서 학<br>전 동 | J.O.C. 정기총회<br>안포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br>중·고생 하기 연수회<br>부녀부 월례회<br>신용조합 월례회<br>회합기념 성당 대지 계약체결 | 54,801원<br>18,230원<br>10,000원<br>15,150원<br>15,640원<br>59,141원 |
| 제 2 지구 | 대 야<br>문 동<br>월 동<br>명 동<br>정 연            | 본당신부 첫 공소 순방<br>꾸리아, 청년회<br>유아 영세 주일<br>하기 피정 적극 참여 요망<br>두동공소 자력으로 20만원 중탑세움 | 6,415원<br>39,350원<br>21,640원<br>12,745원<br>14,520원 |        |                                               |                                                                                         |                                                                |
|        |                                            |                                                                               |                                                    | 제 5 지구 | 남 주<br>부 원<br>장 주<br>진 계<br>진 안               | 사도회 월례회                                                                                 | 4,220원                                                         |
| 제 3 지구 | 고 산<br>금 산<br>여 산                          | 사도회 월례회                                                                       | 3,835원                                             |        |                                               |                                                                                         |                                                                |
|        |                                            | 교회살림에 관심을 가집시다                                                                | 3,855원                                             |        |                                               |                                                                                         |                                                                |